

Sprit witch 시나리오

#Scene 1. 예언의 소년 각인자 (저녁/안)

달이 차오르는 밤 고요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와, 올빼미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) 아르카
력 531년의 어느 날, 월신교 로도스 지점 이제 막 소년의 티를 벗기 시작한 소년이 문을 조심스
럽게 노크를 후 열며 교회로 들어오고 있었다.

문이 열리면서 문에 붙은 종 소리가 울리며,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 달빛과 달빛을 받으며
서있는 신비롭고 신성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기도하고 있는 한 수녀가 보였다.



로즈: (두 손을 모은채 눈을 뜨며) 어서오세요, 형제님 어떤일로 찾아오셨나요?

주인공: (긴장된 듯한 표정을 지으며) 성인식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.

로즈: 그렇군요, 제 이름은 로즈 달의 신 루나님을 믿는 수녀입니다.

로즈는 그 말을 뱉은 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물어보았다.

로즈: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

주인공: [유저입력 -약칭 라스] 입니다.

로즈: 그렇군요, 그러면 라스 그대의 성인식을 거행하겠습니다.

(성인식을 거행하며 특별한 마력이 나타난다.)

로즈: 남성에게 마력이... 혹시? (그녀는 눈을 번쩍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말한다.) 라스 그
대야말로 루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존재 [각인자]로군요

라스: [각인자]요?

로즈: 각인자란 달의 신 루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존재, 늘릴 수 없었던 마력의 총량을 증가시
키고, 마녀를 정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세계의 희망 그것이 바로 각인자입니다 (유저 닉네임)님
부디 세계를 구해주시겠어요?

라스: 알겠습니다. (선택지1),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괜찮을까요 (선택지2)

선택지2 로즈: 그렇군요 하지만 각인자님의 능력이 없다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거예요 부디 다
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순 없을까요? - 강제수락 루트

라스: 알겠습니다.

로즈: 감사해요 라스님, 잠시 수도에 연락을 넣을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

그 직후 밖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.

마을사람 a: 까아아악!

(라스는 교회에서 밖으로 나와 마을을 확인했다 - 몬스터와 전투를 하고 있는 사진)

연락을 마친 로즈가 라스 옆으로 다가온다.

로즈: 무슨일이 일어난거죠?

라스: 마을이 몬스터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요!

로즈: 저희도 도와야겠네요 연락은 마쳤으니 금방 수도에서 사람이 올거예요

#Scene.2 - 마을 중심부 (저녁/밖)

라스와 로즈는 서둘러 마을 중심부로 향했다.



마을로 향하자 보이는 것은 몬스터들에게 둘러 쌓인 채 싸우고있는 파란머리의 한 아이였다.

로즈: 몬스터가 너무 많아요! 각인자님 갑작스럽겠지만 각인자님의 힘을 빌려주세요!

<전투 후>

로즈: 우선 급한 불은 끈 것 같네요

실피: 방금 그 힘은?

로즈: 각인자님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

실피: 설마 예언에 나온 그 각인자?!

로즈: 맞아요 실피, 라스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

실피: 잘 부탁해 각인자님!

이후 수도에서 성기사단이 도착한다.

성기사단장: 월신교 본부의 기사단장 클로이입니다. 마을의 몬스터의 잔당들은 전부 퇴치했습니다. 로즈 수녀님 각인자가 나타났다는 게 사실입니까?

로즈: 네 옆에 계신 이분이 각인자, 라스님이세요

클로이: (남성에겐 없을 마력의 파동 확인 후)사실이군요... 드디어 이 전쟁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니... 라스님 저희와 함께 수도로 가주시겠습니까?

라스: 알겠습니다.

#Scene 3. 수도로 향하는 길 - (낮/밖)

클로이: 죄송합니다 라스님 원래라면 올때와 같이 전이 마법진을 사용해야 했는데... 몬스터의 습격으로 전이 마법진의 마석이 부셔져 버린 탓에 걸어가느군요

라스: 괜찮아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

클로이: 감사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기에 하루정도면 도착할 것 같으니 서둘러서 가도록 하죠.

기사단원: 단장님, 각인자님! 전방에 몬스터가 출현했습니다!

클로이: 라스님 죄송하지만 몬스터를 퇴치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. 힘을 빌려 주시겠습니까?

라스: 네, 실피, 클로이 가자!

전투시작 및 (전투 끝)

클로이: 수고하셨습니다 각인자님, 로즈, 실피

로즈: 수고하셨어요 여러분

실피: 수고했어!

클로이: 수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가도록하죠.

#Scene 4. 수도 레인드로 - (낮/밖)

수도에 들어서자 로도스와는 마치 다른 세계 같은 화려한 건물들과 신기한 도구들, 수많은 인파가 시선을 사로잡았다.

클로이: 수고하셨습니다. 이곳이 바로 라이아왕국의 수도 레인드로입니다.

로즈: 수도는 1년만이네요

실피: 우와 수도는 처음와봐! 각인자님은 와본적 있어?

라스: 나도 처음이야

클로이: 저는 업무의 보고를 하러 월신교 신전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"해일의 여관"에 거주십시오. 하루동안 휴식을 취하시다가. 내일 날이 밝으면 여관으로 찾아 뵙겠습니다. 말은 미리 해놓았으니, 제 이름을 말하시면 최고급 방으로 안내해드릴 겁니다.

로즈: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

실피: 네!

라스: 네.

Scene 5. “해일의 여관” – (밤/안)

로즈: 여기가 바로 레인드로 최고의 여관 “해일의 여관”이에요 저도 너무 비싼 가격에 와보지 못했는데 처음 와보네요!

그 말을 듣고 여관의 풍경을 둘러보았다. 드 높은 천장, 화려한 조명, 잔잔하게 들려오는 음유시인의 연주소리, 그 연주를 들으며 고된 하루를 이야기를 하는 모험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그러던 중 한 모험가 일행 중 한 여성의 술에 취한듯한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.

???: 셸린 들어봐 어제 [각인자]가 나타났다고 월신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야

셸린: 루시드님 그 얘기는 아직 극비 라니까요! 게다가 성녀님이 확인하지 않은 이상 확실하지도 않고요

루시드: 소문이 난적은 많지만 교단에서 말이 나온건 처음이잖아? 아마 사실이겠지, 내일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?

그 말을 들으며 숙소에 배치된 방으로 올라온 나는 침대에 누워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

라스: (NA)각인자...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바로는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줄 예언의 존재 그게 정말 나라고? 내가 잘 할 수 있을까?

생각에 빠지던 도중 노크소리가 들려왔다.

로즈: 라스님 아직 안주무시나요?

라스: 선택지1(들어와), 선택지2(자는척을 한다)

선택지 1루트

로즈: 아직 안 주무셨군요 혹시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잠이 안 오시는건가요?

라스: 응 너무 갑작스러운 하루여서 그런지 잠이 안오네

로즈: 너무 걱정마세요 로도스마을에서 있던 일, 오는길에 만났던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라스님 덕분에 더 강해져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. 앞으로도 괜찮을거예요 그러니 마음 편히 주무세요

라스: 고마워

선택지 2루트

로즈: 주무시는 모양이네요... 내일봐요 라스님

#Scene 5-2. “해일의 여관” – (아침/안)

(사운드: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며, 이미지: 창문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)

로즈: 라스님 일어나셨나요?

신피: 각인자님 일어났어?

라스: (노곤한 목소리로) 일어났어

로즈: 잠시 후 클로이 님이 여관으로 오신다고 하니 천천히 내려오신 뒤 식사를 하도록 해요 저희는 미리 내려가 음식을 주문하고 있을게요.

방에서 나온 뒤 내려가 식사를 마치니 클로이가 여관의 문을 열고 찾아왔다.

클로이: 다들 편하게 쉬셨습니까? 성녀님께서 준비가 끝났다고 하니 신전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동해도 괜찮으실까요 라스님?

라스: 괜찮아요, 그렇게 하죠

클로이: 그러면 지금 신전으로 향하도록 하죠

#Scene 6. 월신교 신전 – (낮/안)

신전에 들어서자 느낀 것은 신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과 성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는 것 그리고 눈 앞에 보이는 여신의 거대한 신상이었다

성녀: 어서오세요 라스님, 그리고 일행분들 저는 성녀를 맡고 있는 달의 정령 라우네 드 세인트, 줄여서 라우네라고 불러주세요 잘 부탁 드려요. 그리고 로즈 1년만이네요

로즈: 네 성녀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?

라스: 로즈, 성녀님과 아는사이야?

로즈: 네 로도로 가기 전 여기서 수녀를 하고 있었거든요

라우네: 그나저나 로즈 1년동안 편지 하나 없던게 말이 돼요? ㅎㅎ..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라스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?

라스: (고개를 고덕이며 신상 밑으로 걸어갔다)

라우네: 여기서 라스님의 능력을 자세하게 확인할게요, 준비가 되셨다면 루나님을 생각하시면서

기도를 해 주시겠어요?

(이미지: 기도를 하자 성녀, 라우네 또한 옆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)

라우네: (라우네는 허공에 뜬 무언가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한다), 우선 라스님은 루나님께서 말씀하신 각인자님이 맞으세요 라스님의 능력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, 각인을 통해 마력을 강화하는 능력, 마녀의 죽음을 마주할 때 마녀를 정화시켜 부활시키는 능력, 마지막으로 예언에는 없었지만 소환될 의지를 지닌 마력 보유자들을 불러들이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월신교의 신전에서만 가능하다고 쓰여있네요

라우네: 클로이 라스님 및 그 일행분들과 함께 마공학부로 가서 물건을 받은 뒤 모험가 길드에 가주 시겠어요? 아침에 급한 연락이 왔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가서 듣겠다고 했었거든요

클로이: 알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함께 가시죠

#Scene7. 마공학부(낮/안)

클로이: 도착했군요

그 말과 함께 보인건 앞에있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과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한 건물 내부였다.

라이: 어서오세요 이곳이 왕국 최고의 기술력이 모인 곳 마공학부, 저는 마공학부의 수석 연구원 라이예요. 여기에 있는 승강기 라는 물건을 통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여기에 타시죠 여러분들에 관한 연락은 이미 받았으니까요

승강기는 조금씩 흔들리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.

실피: 각인자님 이거 혹시 갑자기 추락하거나 하진 않겠지?

라스: (긴장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.)...

클로이:(웃으며 말한다) 몇번이고 타봤지만 아무 이상 없었으니 다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라이: (땡 하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멈춘다) 도착했네요 이 앞에 연구소장님이 계십니다.

(이미지: 앞에 있는 문은 신기한 장치가 달려있어 보였다.) 이후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.

???: 문은 열어 뒀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와!

(이미지: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매우 작은 아이였다)

???: 거기 너! 각인자라도 무례한 생각은 그만둬! 이 몸은 마공학부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바람의 정령 비비안 님이시다!

라스: 죄송합니다.

비비안: 흥! 알면 됐어 라이! 말해 뒀던 물건 좀 가져와!

이후 문에서 누군가가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.

라이: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석 연구원인 라이예요. 물건은 총 두가지예요. 첫 번째로는 멀리 떨어진 분들과 연락이 가능한 전서구예요, 전서구끼리 맞대면 연락처가 등록돼요, 그 후 등록된 대상을 생각하고 마력을 넣으면 통신이 가고 상대방이 연락에 응할 경우 연결될거예요, 또 하나는 마도구예요 고대의 유물을 바탕으로 제작했고 마력의 효율을 올려줘요 우선 실피님의 마도구만 준비되었으니 착용해보세요.

실피: 고마워!

비비안: 다 받았으면 빨리 나가!

라이: 제가 밖까지 안내 해드릴게요

나가는 길에 라이가 말을 꺼냈다.

라이: 다소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긴 하지만 마음이 깊으신 분이예요, 아마 처음 각인자님을 처음 뵈어 낯설다 보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부디 이해해주세요 다왔네요 여기서 저 방향으로 가시면 모험가 길드예요 부디 조심히가세요.

#Scene8. 모험가 길드(낮/안)

(이미지: 수많은 사람들)(사운드 북적거리는 소리) 무수히 많은 다양한 옷과, 종족의 사람들이 있었다. 웃고 떠드는 사람, 게시판を 보고 고민하는 사람, 접수처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 등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보였다.

클로이: 모험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. 이분이 각인자인 라스님이십니다.

루시드: 어! 어제 여관에서 봤던! (웃으며 말한다)설마 너가 각인자였을 줄이야 우선 올라와 여기는 시끄러우니까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

모두가 2층으로 올라간다.

루시드: 셀린 설명 부탁해

셀린: 루시드님도 참... 그러면 제가 의뢰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어제 밤 베스마에서 변절된 마력을 발견했다고 해요. 라스님과 여러분들은 베스마로 가서 진위를 확인해주세요 원래는 마녀, 변절자와 관련된 일은 교단에게 부탁드려야 하지만 성녀님의 요청으로 라스님이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.

로즈: 라스님 어떻게 하실건가요?

라스: 루시드님 그 의뢰 받도록 하겠습니다.

(이후 루시드는 테이블 위에 장비들을 꺼내 올려놨다.)

루시드: 역시 각인자로 선택받은 자야 시원시원하니 좋네! 이걸 의뢰 선수금으로 지급되는 장비들이야 조심히 다녀오라고!

#Scene 9. 공격당하는 베스마 마을(저녁/밖/마을 안)

베스마 마을에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(불타는 건물들과 무너진 울타리, 몬스터에게 공격당해 도망가는 사람들이었다.) 재의 냄새, 사람들의 비명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.

클로이: 라스님! 정신 차리십시오 우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!

라스: (고개를 끄덕이며)로즈, 실피! 우선 몬스터를 정리하자!

<전투 후>

로즈: 후우... 우선 눈앞에 보이는 몬스터들은 전부 해치운 것 같네요 저는 부상자의 치료를 하고 있을게요, 클로이씨 라스님과 함께 주변을 둘러봐주실 수 있으신가요? 실피는 저를 도와주세요.

클로이: 그렇게 하도록 하지 조심하도록

실피: 네! 각인자님 조심해!

#Scene 9-2. 공격당하는 베스마 마을(저녁/밖/마을 밖)

클로이와 함께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자 불 같은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. (이미지 포함) 클로이와 함께 주의하며 가까이 다가가자 말소리가 들려왔다.

???: 흠... 설마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 걸? 내 수하들은 전부 처리한 걸까~? 아 참! 내 소개가 아직이었네 나는 허망의 마녀 데스포네님의 추종자 불의 정령 레퀴엠. 잘 부탁해?

그 말과 함께 레퀴엠의 손에서 불길의 올라오기 시작했다.

레퀴엠: 이거는 인사 대신이야!

(전투돌입)

레퀴엠: 생각보다 잘 버티는걸? 그럼 이거는 어때!

클로이: 라스님 더 뒤로!

클로이는 공격에 대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팔을 휘두르려는 찰나, 그림자가 사이에 나타나 공격을 삼켜버렸다.

???: 더 해볼 생각 없으면 꺼져, 지금은 놔줄 테니까

레퀴엠: 흐응... 그림자의 정령까지 합세해서 싸우기엔 조금 벅차겠는걸~ 좋아, 지금은 물러나도록 할게

그 말을 남긴 채 레퀴엠은 불꽃이 되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.

???: 너희도 가 마을의 인원들을 구하는게 우선이잖아 잔당의 처리는 우리가할 테니까

라스: 너는?

???: 나는 새도우 커튼의 단장 루카. 조만간 또 만나게 될거야

그 후 루카는 그림자가 되어 모습을 감추었다.

클로이: 새도우 커튼... 모험가님 우선 클로이 일행에게 돌아가 마을을 수습한 뒤 전서구로 미리 연락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.

라스: 네 그렇게 해요.

일행에게 돌아가자 로즈가 먼저 말을 꺼냈다.

로즈: 오셨군요 라스님, 클로이씨 주변은 어땠나요?

로즈와 실피에게 마을 밖에서 있던 일을 설명한다.

로즈: 그렇군요... 새도우 커튼과 변절자라... 이 이야기는 수도로 돌아간 뒤 이어서 하도록 해요 마을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인원들의 치료는 끝났어요. 불이난 건물은 실피가 해결하러 갔으니 곧 돌아올거예요, 여기서 밤을 보낸 뒤 내일 오전에 가는편이 좋을 것 같아요

#Scene 9-3 공격당하는 베스마 마을(아침/밖/마을 안)

클로이: 다들 준비는 되셨습니까?

실피: 응!

로즈: 네.

라스: 준비됐어요

클로이: 그럼 출발하도록 하죠

#Scene 10. 월신교 신전(낮/안)

신전 안으로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라이아님과 진중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귀품있는 옷을 입은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

클로이: 성녀님 복귀하였습니다.

라우네: 어서와요 클로이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...

???: 내가 직접 소개하도록 하지 내 이름은 아이샤 폰 라이아, 라이아 왕국의 제1 왕녀다 잘 부탁하지 라스. 그리고 그 일행이여, 각인자라면 중요 인물 우호를 다지기 위해 아이샤라고 불러도 좋다.

왕녀, 아이샤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.

아이샤: 잘 부탁한다

라스: (악수를 받으며) 잘 부탁해

라우네: 인사도 모두 마쳤으니 어제 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요?

(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다)

아이샤: 흠, 루카와 레퀴엠이라... 새도우 커튼이 어째서 베스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거다. 왕실에서 몇번 의뢰를 맡기려 갔었지만 우호적이었거든

라우네: 문제는 레퀴엠이네요 허망의 마녀 데스포네... 그녀와 그녀의 변절자들은 알고 있지만 레퀴엠이라는 변절자는 처음 듣는 걸 보니 새로운 변절자일까요?

아이샤: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, 왕실에서 파악하고 있던 허망의 변절자들 중에서도 그 이름은 없었으니까

라스: 변절자들?

아이샤: 그래 왕실에서 파악하고 있던 허망의 변절자는 셋, 땅의 정령 - 아벨리안, 외팔의 검사 - 시즈, 닿지 못한 자 - 이스, 이 세명이 왕실에서 파악하고 있던 허망의 변절자다.

라우네: 월신교도 동일하게 그 세명으로 알고있었어요, 그런데 레퀴엠이라니..

아이샤: 이로써 허망의 변절자는 네명이 되었군 라스여 마녀가 그대의 존재를 알아챘다면 앞으로는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. 왕실의 기사단장을 붙여줄 테니 같이 다니는게 좋아 보이는구나

라스: 그렇게 마음대로 인원을 차출해도 괜찮은거야?

아이샤: 무얼 이 몸은 왕실의 제1 왕녀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, 메이!

메이: 네, 왕녀님.

아이샤: 그대는 오늘부터 라스를 지키거라 어마마마께는 내가 말씀드려 놓을 테니.

메이: 알겠습니다. (일행에게 몸을 돌리며) 잘 부탁드립니다. 라스님 저는 왕실의 기사단장 메이 론페이 메이라고 불러주시길.

라스: 잘 부탁드립니다.

메이: 말씀을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라스님, 라스님은 왕녀님의 친우 말을 편하게 하시는건 당연한 일입니다.

라스: 알겠어 그럼 다시한번 잘 부탁해 메이

메이: 네